

MZ세대의 니즈

패션 쇼핑앱들

'정보 더미' 속에서 찾은 '내 옷'

패션 쇼핑앱은 그 탄생부터 목표가 명확했다. 'MZ세대를 타깃으로, 모바일을 공략한다.' 네이버 등 <mark>포털에 아무리 많은 제품이 올라와</mark> 있어도 옷을 사고 싶은 20대는 쇼핑앱을 찾는다. 이들에게 포털이 제공하는 '정보 더미'는 피로감만 높일 뿐이다.

MZ세대는 한정된 시간에 '또래가 입는 예쁜 옷'을 사기 위한 정보만 효율적으로 전달받길 원한다. 쿠팡 등 이커머스를 찾지 않고 패션 쇼핑앱을 찾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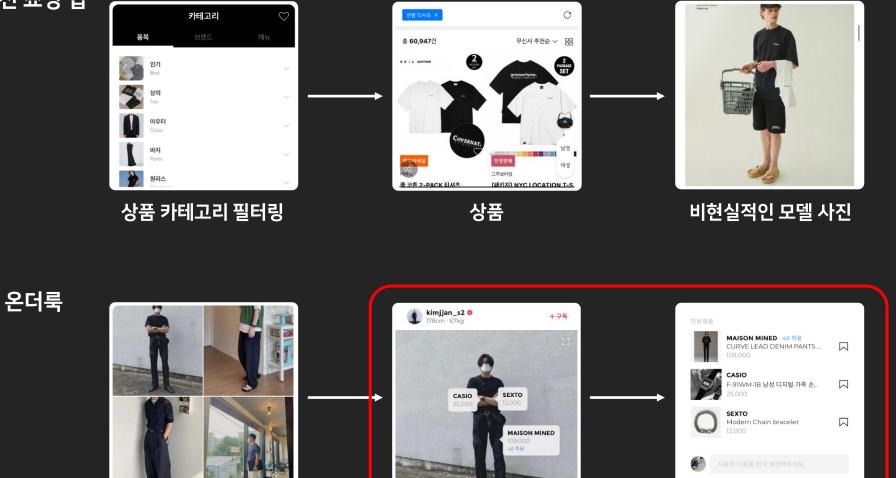
아주경제, 20.07.21, 신보훈 기자, [젊으니, 트렌드②] MZ세대는 왜, 패션 쇼핑앱에 열광하나



MZ세대의 니즈를 바탕으로 패션쇼핑앱이 성장할 수 있었다

패션 쇼핑 앱

분위기 필터링



온더룩은 <mark>일반인들의 착용사진</mark>을 통해 쇼핑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있다

일반인들의 착용사진

상품



온더룩은 <mark>특정 옷과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구매하려는 사람</mark>에게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



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진들만 분류하기

분류한 사진들 탐색하기

A소비자는 수 많은 사진에서 검은색 상의가 포함된 사진만 분류해야 한다



검은색 상의를 입은 사진들만 분류하기

분류한 사진들 탐색하기

하지만 분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낀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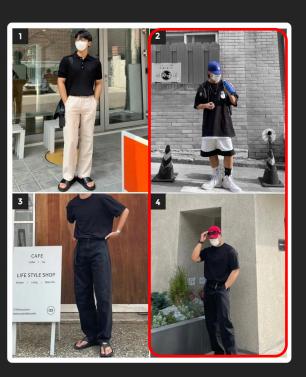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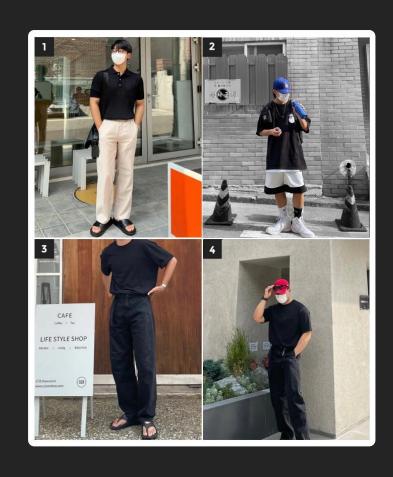


사진 중에서 검은색 상의가 포함된 사진만 <mark>필터링</mark>하는 기능이 필요하다



필터링한 사진들 탐색하기

원하는 색상의 바지 선택하기

A소비자는 더욱 쉽게 원하는 색상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

이 기능만으로 과연 모두가 '선택하기' 를 할 수 있을까? 선택하기

분류한 사진들에서 원하는 색상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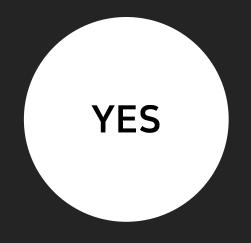


기준이 있어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사람



선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<mark>새로운 기준</mark>을 만들어줘야 한다

분류한 사진들에서 원하는 색상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가?



기준이 있어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사람



새로운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한 사람

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<mark>새로운 기준</mark>이 필요하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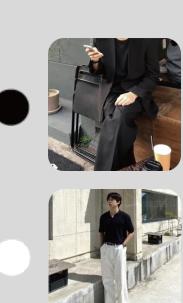
어울림의 기준을 제시하다 이모지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배경 자료 :



여성들의 룩북 약 120만장의 사진 중

이상치 제외한 약 30만장의 사진 데이터 사용

에 어울리는 하의 색깔 순위



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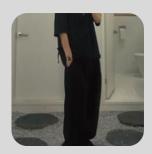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













기대효과

다른 패션 쇼핑앱에 없는

<mark>새로운 어울림의 기준</mark>을 제시하기 때문에

기준이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며,

<mark>신규회원증가의 효과</mark>까지 기대할 수 있다

기대효과

또한,

기준이 있는 사람에겐

새로운 색조합을 제시하며 <mark>신선함</mark>을 줄 수 있고,

온더룩의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면

'MZ세대의 패션 트렌드체커'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

Q&A

감사합니다